

# 「군축」逆風… 아시아國 전력증강 가속화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가 밝힌 군사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 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전세계 대형무기교역량의 35%를 수입했는데, 이는 유럽이나 中東을 포함한 세계 어느 지역보다 많은 양이다.

구매국들은 대만이나 한국, 싱가포르와 같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들이 아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가난한 나라인 인도가 최대무기수입국이다(물론 과거에는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라오스같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나라들이 GNP에 비해 엄청난 무기를 구입한 적이 있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이와 같은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염려한 원조 제공자들의 우려때문에 그들이 해외로 부터 받는 원조를 삭감당하고 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이론적으로 볼때 어느 국가든지 국방비를 GNP의 4.5%내로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아시아국가들 중에서는 파키스탄, 북한, 대만, 싱가포르를 포함한 몇개국이 GNP의 4.5%를 넘고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캄보디아, 라오스같은 국가들도 정확한 수치를 밝히고 있지 않았으나 이보다 훨씬 초과될 것이다.

아시아국가의 국방비와 무기수입비용

구 분	87~91 무기수입비용		1989년도 GNP대비 국방비(%)	1989무기 수출액 (백만불)
	금액 (억불)	GNP대비 (%)		
인 도	176	1.3	3.1	-
북 한	46	2.0	20.0	400
한 국	36	0.3	4.3	40
태 국	34	1.0	2.7	-
파 키 스탄	23	1.1	6.8	20
대 만	22	0.3	5.4	10
인도네시아	14	0.3	1.7	10
싱 가 포 르	13	0.9	5.1	70
중 국	8	0.0	3.7	2,000
말레이시아	1	0.1	2.9	-

인도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무기를 소련으로부터 구매해왔다. 소련의 몰락으로 인도의 무기조달이 한때 혼란에 빠지기는 했지만, 인도의 예산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西유럽, 동구의 군수업체들이 세일즈를 위해 줄을 서 있는 형편이다.

이들 회사들도 재고 무기를 경매를 통해 감축하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지흐공화국들과 비행기, 헬기, 전차 등의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터군다나 위기가 고조되거나 과도한 야심이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무기수입에 대한 규제도 있기도 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그렇게 했고, 중국도 규제를 당했으며, 서방세계는 인도와 파키스탄에 미사일이나 핵기술의 반출을 봉쇄하여 자생적으로 커온 군수산업만 유지되도록 규제한바 있다.

지난 5월 인도는 중거리탄도 미사일인 애그니(AGNI)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애그니의 시험발사는 지난 5월초 중국이 1 메가톤 규모의 핵무기를 시험한 것에 대한 답장인 셈이다.

(이번에 시험된 핵무기는 150킬로톤 규제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새로운 문제는 5대강국—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가 영향력을 다투고 있다는데 있다. 소련의 몰락과 미국의 작아진 위상때문에 이들 라이벌국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국가들은 국경이 자주 변하고 도서(島嶼)문제에 따른 분쟁이 많아, 무기교역을 촉진시킬 재래식 전쟁의 위험성이 크다.

결프전이후 많은 나라들이 전투기, 유도무기, 기동성좋은 전차와 야포, 장거리 전함(중국의 경우에는 항공모함)들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 이와같은 무기들을 갖추게되면 소규모 전투라도 그 피해는 매우 클 것이다.

<The Economist> 1992년 6월 26일호